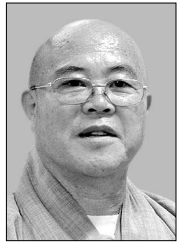


인터뷰

“광주불교의 미래 확인”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장 시각 스님

“빛고를 광주가 맡 그대로 환해졌습니다. 최고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천명이 넘는 대중이 석 달 가까이 공부하는 동안 그대로가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던 영산회상이었습니다.”



이번 빛고를 불교아카데미를 현대 불교신론사와 함께 공동 주최한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장 시각 스님(동원사 주지·사진)은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수계식 연회를 할 때 감격에 겨워 눈물을 쏟을 뻔 했다”며 “강사, 수강생, 실무진 등 모든 대중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매 강의에 앞서 천명 가까운 대중이 예불을 모실 때마다 광주불교의 미래를 기원했다”는 스님은 이번 강좌의 성공요인에 대해 “부처님 10대 제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통해 불교를 공부하는 자리에서 재가불자들이 더욱 쉽게 불교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님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며 “공부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도록 불교아카데미를 정례화시켜 빛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넘쳐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의 사암과 재가신행단체가 힘을 모으면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사암연합회가 나서 불교아카데미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끄러운 진행 놀라워”

■장흥서 ‘개근’한 장재영씨 가족

“지난 10주간 수요일만 되면 날씨가 맑아져서 좋았습니다. 길이 막혀 부처님법을 듣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전남 장흥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장재영(66·사진 맨 왼쪽), 마정희(64·왼쪽에서 두번째) 부부는 아들 장준호씨(37·맨 오른쪽)와 함께 1시간 반이 넘는 광주까지 달려와 11번 모두 참석할 개근 가족이다.

5시가 되면 장흥에서 출발하는 장씨 가족은 강의가 끝난 후에야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집으로 향하곤 했다.

먼 걸음 나서는 부모님을 위해 운전용 자정하고 나선 준호씨는 “처음에는 운전만 하려고 했는데 스님들의 강의를 듣다보니 도리어 제가 공부하기 위해 먼저 나서게 된다”고 회고했다. 마정희 보살도 “가족이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려 다녔던 지난 시간이 참으로 좋았다”며 “이제는 실천행을 펴는 불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재영 거사는 “강의 내용도 훌륭했지만 군더더기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의식에서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며 “내년에도 더 좋은 주제로 불교아카데미가 펼쳐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부처님 10대 제자 바로알기 열풍

광주 동구불교협-현대불교 공동주최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빛고를 불교아카데미 결산

부처님 10대제자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열풍이 빛고를 광주에서부터 일고 있다.

광주 동구불교협의회(회장 시각)와 현대 불교신론사(사장 김광삼)가 지난 10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1회에 걸쳐 공동 주최한 빛고를 불교아카데미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

이번 빛고를 불교아카데미는 부처님 재세 당시 제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통해 불교를 새롭게 접하도록 하는 첫 시도여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매주 강의는 물론 회향을 기념하는 송년한마당에도 1000여명의 대중이 참석해 불교를 알고자 하는 지역불자들의 욕구는 물론 호남불교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강의를 맡은 스님들도 이번 강좌에 대해 “그동안 시도하지 않은 신선한 주제”라고 밝히고 10대제자의 인간적인 삶과 가르침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했다.

강사 스님들은 ‘10대 제자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상기시키고 부처님 상수제자들의 치열한 구도정진을 소개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현대인이 살아가

이준엽 기자

이모저모



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스님은 수강생들의 가려움을 정확히 짚어 질의응답으로 유도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매 회 강의가 끝난 후에도 공부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마무리에 힘썼다”는 스님은 이를 위해 ‘산화가’ 대신 대중이 함께 ‘보왕삼매론’ 합송으로 마무리를 시작했다.

사찰·신행단체 20개 ‘혼연일체’ 준비

○... 이번 강좌는 지역 사암과 20여개의 신행단체가 함께 참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6명으로 구성된 실무진은 총 22회에 걸친 모임을 가졌으며 신행단체 대표들이 모이는 운영위원회도 10회에 걸쳐 열리는 등 모처럼 실무자와 신행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 향후 불교행사의 근간을 세웠다는 평을 받았다.



다도회서 차 제공, 운물련서 주자 안내

○...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강의에 앞서 한잔의 차를 긴장을 푸는 것은 색다른 즐거움의 하나. 덕림사, 약사사, 자비신행회 등 광주지역 각종 다도회는 매주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솜씨를 자랑해 수강생들로부터 인기를 모았다.

또한 기정중 보살(해명 다레원)은 강사 스님을 위해 꽃꽂이와 차 공양으로 열렬한

면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10대 제자들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며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이끌었다. 매회 참석자들은, 본 강의에 앞서 <저녁예불>과 <보왕삼매론>으로 회향하는 법회 진행, 강사 표정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계 등에서 불교 법회의 현대화를 향한 토론탈 시스템을 접했다는 평이다.

재가 실무진과 함께 기획, 진행에 참여한 진화(중심사 주지), 석장(문빈정사 주지) 스님은 “불교아카데미를 통해, 현대인이 갈망하는 마음공부와 바른 불교를 알리고자 했다”며 “대중 불교강좌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부처님 10대 제자 이야기’는佛法 뉴스(news.buddhapia.com)에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마하불(www.mahabul.co.kr)에서 캐세티테이프로도 만날 수 있다.

“헤매다 나침반 발견한 듯”

■박현주(광주 전남 교사불자회)



부처님 말씀을 좋아하지만 불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여러 저녁에 진행되는 빛고를 불교아카데미에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이번 강좌에 참석했던 것은, 덕 높은 스님들을 가까이서 뵈고, 불교를 올바르게 공부하고, 불교와 더 깊은 인연을 맺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강좌를 통해 우리 주위에 훌륭한 스승과 정다운 도반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고 혼란스럽게 느껴졌던 시절에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길 잃고 헤매다 지도나 나침반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길을 따라 가지만 하던 되겠다는 안도감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그 길은 ‘부처님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대목에서 찾았습니다.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 제도 못하고,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게 되어 있고, 그 누구도 대신 성불 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업을 대신해 줄 수도, 부처가 되어 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 법을 전해 줄 뿐입니다.

이번 빛고를 불교아카데미는 이미 불자이신 분들에게는 부처님과 인연을 더욱 소중히 하는 기회가 되었고, 아직 불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부처님과 새로운 인연을 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좋은 자리가 헤매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길 바랍니다.

“젊은 불자들 동참 반가워”

■강원영(회사원)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 10여년이지만 이처럼 큰 스님들의 대중강좌에 참여하기는 처음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그동안의 신생활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강좌에 참석하면서 의외로 거사들과 젊은 불자들이 많았는데 놀랐고 반가웠습니다. 흔히 불교 하면 할머니 할머니가 다니는 종교로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좌를 통해 불교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으며 불자로서 자부감도 느끼게 됐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봉독했던 <보왕삼매론>은 불자들에게 좋은 삶의 지침서라 생각합니다. 불교의 지혜가 그대로 녹아있어 가슴속 깊이 새겨놓고 생활속에 함께 할 것입니다.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강좌 같은 대중법회가 자주 열려 더 많은 이들이 불교와 인연 맺기를 기원합니다.

삼매체험 선 수련회안내

- ◆연강단식으로 신체 정신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초보자도 전통 수행방법인 간화선수행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
 - ◆전 국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국민단식이며 쉽고 강해지는 연강단식이다.
 -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 음식을 끊는 단식과 참선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 ◆지혜와 인내심을 키우고 인간관계의 기준관념에서 탈피한다.
- 수행과 단식으로 신체와 정신을 갱신한다. 예비단식과 보식이 없이 쉽고 효과는 높이는 전 국민이 누구나 할 수 있다.
 - 단식과 참선으로 차원을 높은 수행으로 정신과 신체를 혁신시킨다.
 - 체질개선의 효과와 다이어트, 위장병, 피부미용, 피부질환(아토피) 등 각종 질환에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당뇨 고혈압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도 단식이 가능하며, 복용중인 약을 끊고 단식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단식의 시작으로 체질이 강화되는 연강단식이다. 단식의 고충을 최소화한 약단식이다. (예: 2005년 봄 직장인으로 출퇴근하며 7일간 단식으로 체중 6kg이 빠짐)
 - 공부정도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자세와 병통을 치유한다. 수련기간에 생활속에서 참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모든 구조 즉 가족간, 직장인간, 조직구성원간, 정신과 물질, 있음과 없음, 높고 낮음, 빈부와 귀천, 행복행 등 불평 등 갈등과 모순을 통해서 파생되는 부조화를 치유한다.

홈페이지 원명선원.kr / wseon.com
 대상및인원 성인남녀 70명
 수련일정(6박 7일) ■ 1차: 05. 12. 28 - 06. 1. 3 ■ 2차: 06. 1. 10 - 1. 16
 접수 05년 12월 23일 까지 마감.
 접수처 제주시 화북1동 4684번지 원명선원 ☎ 064-755-3322
 회비 후원금으로 접수(생계가 어려운 자는 고려함)

① 즉심즉각 한라산 원명선원

시공의 천년, 숲속의 향기, 천불의 미소

제2회 직지사 동안거 어린이 단기 출가

대자연의 만다라 속에 부처님의 향기 가득한 직지사에서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다운 인간의 길을 찾는 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량한 산사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머리와 가슴을 비우고, 천불의 미소처럼 본래의 밝은 자기를 되찾을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인생의 체험을 통해 세상의 티끌을 벗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부처님 세상으로, 자!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 래

- ◆기간: 2006년 1월 9일 ~ 2006년 1월 14일
- ◆인원: 선착순 50명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 ◆참가비: 10만원
- ◆준비물: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편한 옷
- ◆접수: www.jikjisa.or.kr ☎ 054)436-6084 (템플스테이 사무국)
- ◆계좌번호: 우체국 702829-01-000591(예금주: 직지사)
-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안전보험 가입용)
- ◆자원봉사자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제 8교구 본사 직지사 주지 성웅